

[보도자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었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발신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수신 : 제 언론사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문의 : 정재은 010-9186-4103(공공운수노조 선전국장), 이태성 010-9946-9656(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故김용균 시민대책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를 요구합니다.
3. 이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문화제, 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동을 이어갑니다. 22일과 2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추모제를 진행합니다.
4.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책위 입장 및 요구, 추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3. 대책위 참가단체 명단

첨부자료 4. 추후 일정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었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시간 : 2018년 12월 17일 오후 2시
- 주관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순서 (사회 : 대책위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

1. 유가족 말씀
2. 동료발언: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김경래 조합원
3.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4. 천주교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
5.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6.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7.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
8. 기자회견문 낭독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보영 스님,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지난 11일 03시 32분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라고 손피켓을 들었던, 꿈 많던 24살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죽었다. 참담한 마음이다.

아들이 죽은 현장을 방문한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시키느냐” 며 오열했다.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었다. 서둘러 사고현장을 청소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과 죽음을 떠넘긴 탐욕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를 더욱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현장대기실에서 나온 유품이다. 작업지시가 적힌 탄가루가 가득 묻은 수첩과 고장난 손전등, 그리고 컵라면... 2년 전 구의역이 김 군의 것과 똑같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모습에 경악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진 고용구조, 산업재해 통계 은폐 등 연일 쏟아지는 발전소 운영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고였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남긴 참사다.

비단 한국서부발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분노했지만 돈이 우선인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구의역 현장을 방문했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안 하나 통과된 것이 없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말 뿐이었다. 수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은 돈 앞에 죽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안화력 1-8호기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를 잡아먹는 컨베이어 벨트는 생생 돌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한국서부발전이 2인 1조로 점검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원충원이 없는 조치여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점거할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12월 16일 (일)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노동자보다 설비가 더 중요한 세상인 한국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으며 아래와 같이 유가족 긴급요구안과 유가족 긴급 요구사항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및 유가족 공식 입장을 밝힌다.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가족의 긴급요구사항으로 태안화력의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당장 멈춰야 하며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의 1-8기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긴급요구를 밝힌다.

아울러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 문재인 대통령 사과 2.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3.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5.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유가족분들의 긴급요구와 기본 입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2일(토)오후 5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 추모의 마음과 위험의 외주화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에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에 유가족과 함께 직접 참여할 것이다.

넷째, 안전한 사회만들기 토론회(19일), 청년 추모의 날(19일),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21일)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각계 각층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늦둥이 막내아들, 24살의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잃은 부모님, 현장을 보시고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라고 오열했던 어머니님께서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21일

(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라고 했던 못
다 이룬 아들의 꿈을 부모님이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2018년 12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3> 대책위 참가단체

<노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자정치센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충남도당, 다산인권센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충남도당,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주권자전국회의, 청년전태일,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노동안전>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충남지역>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참여자치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연합,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남노동인권센터 두리공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태안참여자치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행복한 서산을 꿈꾸는 노동자모임, 홍성YMCA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청년 추모행동의 날 너는 나라

태안화력에서 고인이 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꿈,
우리가 실현하겠습니다

12월 19일(수) 저녁 7시
광화문광장



추후일정

- 12월 19일(수) 16:00 충남노동자 결의대회 (서부발전본사 앞)
- 12월 20일(목) 11:00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된충남지역 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 (태안보건의료원 상례림)
- 12월 21일(금) 17:00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18:00 촛불문화제

지역별 추모 행동

- 태안: 매일 19:00, 주말 16:00 태안터미널 사거리
- 충북: 12월 17일(월), 18일(화) 18:00 청주성안길
- 전남: 12월 17일(월) 18:30 순천 국민은행 앞
- 대구: 12월 18일(화) 18:00 한일극장 앞
(18일부터 시민분향소 운영)
- 광주: 12월 18일(화) 19:00 금남로 알라딘 서점 앞
- 청원: 12월 18일(화), 20일(목) 18:30 정우상가
- 대전: 12월 19일(수) 18시 30분 갤러리아백화점 앞(둔산)
- 경기: 12월 19일(수) 18:30 수원역 남측광장
(17일 오전 11시부터 분향소 운영)
- 제주: 12월 19일(수) 18:30 제주시청
- 울산: 12월 19일(수) 17:00 롯데호텔사거리(삼산동)
- 전북: 12월 20일(목) 18:30 전주 객사 앞
- 인천: 12월 20일(목) 18:30 부평역
- 강원: 12월 20일(목) 19:00 춘천 팔호광장(예정)
- 부산: 12월 20일(목) 19:00 서면 주디스타화

촛불 추모제 일정과 지역별 계획은 지속해서 공지하겠습니다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